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약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마지막 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추수를 끝낸 논과 밭은 하늘을 마주한 채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거룩해 보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마주하며 안식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다 비우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님만을 마주하길 원합니다. 깊은 안식을 통해 하늘의 힘을 덧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날이 추워져 일상을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긴 겨울을 날 생각에 큰 한숨을 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따스한 외투가 되어주시고 따뜻한 방구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12	인도자
♠ 교 독 문	63. 시편145편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박영실 선생 II.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함께
성경봉독	I.마6:9	전수정 학생
	II. 출23:4-9	박규석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거룩한 이름	김재홍 목사
	II.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	김기석 목사

찬 양 465(통523). 주 믿는 나 남 위해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늘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사십시오. 바름과 의로움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하나님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다 함 께 : 아멘. 하나님나라의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편협한 생각과 이익만을 따라 살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바름과 의로움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작은 나의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모임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최경미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황경순 집사	김지원 학생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이건식 집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곽상준 정현숙 백성례 최경미
	헌금위원	한상익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성숙과 자유를 위한 소속감(2)

공동체는 우리의 성숙을 돕는 곳이며,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인간답게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공동체는 권력, 특권, 이기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진리 안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려 할 때 꼭 필요한 곳이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태도, 겸손하면서도 대담한 태도를 배우는 곳이다. 공동체는 우리의 참자아가 양심에서부터 솟아올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완전한 자신이, 더욱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곳이다.

유대인들은 소속감에 대해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사야 예언자는 성전에 가서 금식도 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이사야58:6-7)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풀려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약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는 세계 곳곳에 있는 약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를 열려있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열려있는 공동체의 첫 번째 징표다. 건강한 결속력을 지닐 때 타자를 더 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

건강한 공동체의 두 번째 징표는 타자를 위한 봉사의 사명을 얼마나 겸손한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느냐이다. 건강한 공동체는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타자를 이용하지 않는다. 건강한 공동체는 자신의 비전을 타자에게 주입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이의 이야기와 삶에 관심을 갖고 그의 존재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다른 이가 그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를 북돋아주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진실하게 대화나누기를 두려워한다면, 공동체가 간혀있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가 죽어있다는 징표다.

타자의 재능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가두었던 그릇된 확신의 장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세 번째 징표다. 불과 몇 세기 전에 기독교는 자신 안의 다른 교파와 전쟁을 벌였다. 그들의 신학은 한

쪽은 옳고 다른 한 쪽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문화를 분열의 힘으로 경험하기보다는 연합의 힘으로 경험하고 있다. 타자의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각 개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한 공동체의 네 번째 징표는 한 그룹이 더 진실하고 더 사랑하고, 더 다름을 존중하고, 더 지도자가 경험한 방법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열려있기 위해서 발전을 모색할 때, 지난날의 과오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할 때, 외부인의 경험의 도움을 구할 때 나타난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타자의 지혜를 구하기를 거부하는 그룹은 '거만함'의 장벽 뒤에 자신을 가둘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징표를 가지고 발전하는 그룹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 속에 내재돼 있는 이기성을 깨뜨리고 더 큰 성숙과 내적인 자유를 향해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삶을 주고받는 가운데 참된 인간성을 발견하게 해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준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땅과 하늘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듯 그들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듯 말이다. 우리는 두려움과 편견, 우월감과 열등감에 묶이지 않은 채 완전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타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타자에게 나를 주기 위해 성장해야 할 소명이 있다.

... 역사가이자 에큐메니칼 신학자인 도날드 니콜은 많은 주제에 관하여 폭넓게 책을 썼다. 그는 특히 신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인 큰 종교들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니콜은 도발적이면서 진실하게 쓴 책, 『진리의 팔복』에서 독일 나치 치하의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에 대해 썼다. 그 두 교회는 히틀러에 의해 박해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한 것이다. 그 교회들은 자신 안에 갇혀 있어 자기에게 부여된 더 큰 원칙을 보지 못했다.

평화가 우리 세계에 깃들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는 공동의 운명에 의해 묶여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각 나라들이 한 가족처럼 소속감을 느낄 때, 우리 모두는 타자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장 바니에, 『인간 되기』 중에서

빈 의자

최원정

조금 힘들면
쉬었다 갈 수 있는
빈 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신의 휴식을 도와 줄
그런,
편안함이었으면 싶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운 공간으로 남아

그대
잠시라도 머물러
새로운 희망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한
빈 의자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장영숙 김철수 유영남 김준우 우순덕 권미숙 김근종 정옥영 김정길
 최숙화 김준호 광혜자 김훈동 유경순 배근수 김금순 서원금 윤미경
 윤수진 임주빈 최현옥 조현권 박아영 김정애A조문규 진정숙 박병구
 김정애 홍복선 김민화 이성운 김혜영 김재흥 최희영 이해수 박소진
 무명

월정헌금:

김남중 오복순 김미순 김윤정 이갑재 이유선 방극숙 전영자 하현철
 최성애 최윤희 박석희 조항미 구명자 최재욱 이수정 권미정

감사헌금:

변경수 이광용 형인순 강순배 김혜빈 장영숙 유지은 김아영 한훈식
 권채영 이은자 오현창 동북교회 무명

녹색꿈 헌금:

최경미 윤여민 임보람 박지인 이건식 신영신 백혜숙 장성호 박성희
 강미선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송임회	박영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최경미	이재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광혜자	신영신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박옥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문복순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구성실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숙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김희우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송양진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배삼순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령강림절 마지막 주** : 오늘은 성령강림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부터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2. **선교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한 해의 살림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사무실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고서** : 당회 준비를 위해 각 부서의 2010년 활동 보고서를 28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속장 인도자 모임** : 2부 예배 후에 속장인도자 모임이 3층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5. **후원의 밤** :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후원의 밤 행사가 25일(목) 저녁 6시 30 분에 이화여대 복합관 B 4 층 이삼봉홀에서 열립니다.
6. **신앙실천** : 오는 25일(목)은 '아무것도 안 사는 날'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입니다.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다음 주 : 베다니 속)

* 설거지 봉사 : 김대근 김세진 곽상준 (다음 주 : 김승일 김경선 이준하)

* 새교우 : 장다운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